

GCC 변화의 바람을 타라

- 중동 부국 소매시장, 헬스케어, 교육관련 상품 및 서비스 부문 유망 -

송 송 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요 약>

‘오일달러로 부를 축적한 중동, 최근 유가하락으로 산업다각화 가속 추진’

최근 4년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 GCC(Gulf Corporation Council; 걸프협력위원회) 6개국은 전세계 GDP의 2.2%를 차지하는 등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2014년 6월말 이후 50달러대로 유가가 대폭 하락하면서 원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각국 정부의 산업다각화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GCC 시장은 전세계 원유매장량의 29.4%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 역시 전세계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GDP 역시 GCC 6개국 모두 4만 달러가 넘어 세계 평균(13,100달러)을 크게 상회한다. 더구나 출산율이 높고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고 있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2030년경에는 6,2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GCC 회원국들은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재정수입의 80% 이상을 원유수출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높고 자국민 실업률이 높은 점도 고민 중 하나로 뽑힌다. 이에 최근 GCC 각국은 비석유 부문 활성화를 위한 산업다각화와 자국민 고용창출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0년 두바이 엑스포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등을 앞두고 있어 시장으로서의 매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GCC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무역파트너, 우리의 투자는 아직 미미’

우리와 GCC간의 무역규모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해 왔으며, 무역비중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성장하는 무역규모와 달리 직접투자 규모는 48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투자하는 전체에 1.2%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투자 대부분도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건설업이 차지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카타르 월드컵 및 두바이 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와 더불어 젊은 인구와 여성 사회진출 증가, 관광산업 확대로 소매유통시장이 유망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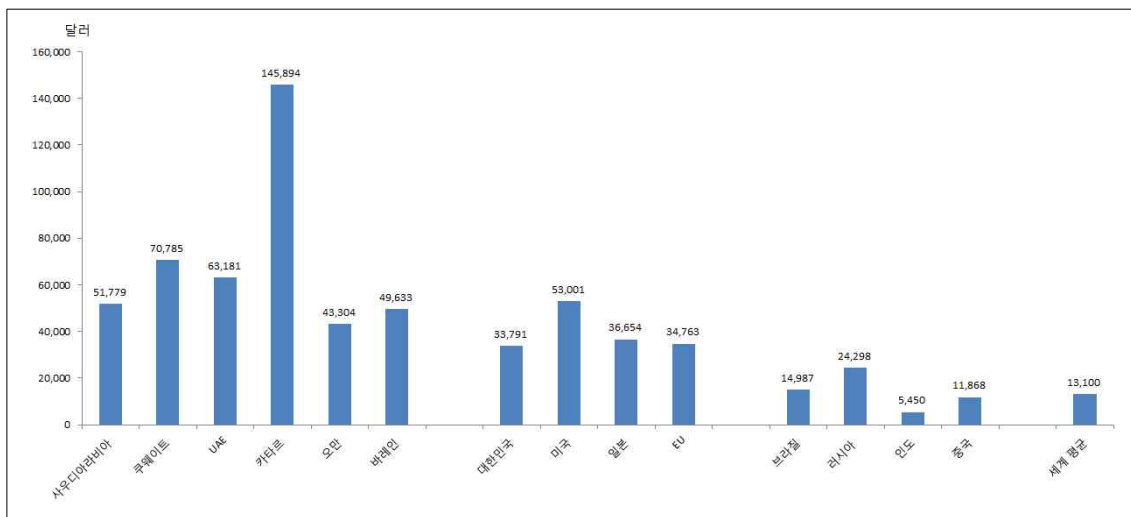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점에 주목해야 하는가? 향후 GCC 국가의 생산과 소비를 주도할 15~64세 생산가능인구 증가와 0~14세 인구 비중이 25~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광산업 육성과 국제행사 유치 등으로 유동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인한 여성의류 및 화장품, 가공식품 등 각종 소매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GCC 국가는 더운 지역이다. 이점에 주목하자. 무더운 날씨는 독특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그에 따른 질병을 동반하게 된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질병 맞춤형 건강관리 및 의료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료 및 헬스케어 시장 진출에 힘을 실어 보는 건 어떨까. 또한, 인적자원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교육 분야 투자 증가를 대비한 교육기자재 및 e-러닝 등 스마트교육 서비스 시장 진출 역시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1. 최근 GCC 경제 동향 및 GCC 시장의 특성

‘오일달러로 부를 축적한 중동, 최근 유가하락으로 산업다각화 가속 추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4년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면서 GCC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이들 국가의 GDP 합계는 2013년 기준 1조 6,389억 달러로 전세계 GDP의 2.2%를 차지하며 이는 세계 12위인 호주 보다 높은 수준임.
- GCC 국가들의 GDP 성장률은 대체로 전세계 성장률을 상회해왔으나 최근 원유 생산 증가와 셰일가스 혁명으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일부 국가의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었고, 2014년 말 이후 이라크 사태 등으로 인해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대로 폭락하면서 GCC 국가들은 원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산업다각화 움직임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 GCC는 전세계 원유매장량의 29.4%를 보유하며 생산 역시 전세계의 24.5%를 차지하며 GCC 각국의 1인당 GDP는 모두 4만 달러를 웃돌며 세계 평균(13,100달러)을 크게 상회함.
- GCC 회원국 인구는 2015년 현재 5,100만 명으로 추산되나 꾸준히 증가하여 2030년경 6,300만 명에 다다를 전망이다

<2013년 GCC 및 기타 주요국의 1인당 GDP(PPP 기준)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4. 10), CIA World Factbook

- GCC 회원국들은 재정수입의 80% 이상을 원유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조업 비중이 GDP의 10% 내외로 매우 낮은 데다가 아열대 사막성 기후의 더운 날씨로 외국인 노동자가 총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자국민 실업률이 매우 높음
- 세계은행에 따르면 GCC 국가들의 사업환경 종합순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브라질이나 러시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는 2005년 종합 순위 69위에서 2015년 현재 22위로 상승함.

<2015 세계은행 사업환경(Doing Business) 순위>

구분	국가	전체 순위	창업	건축 인허가	전기 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 조달	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통상 행정	계약 이행	폐업
GCC	U A E	22	58	4	4	4	89	43	1	8	121	92
	사 우 디 아라비아	49	109	21	22	20	71	62	3	92	108	163
	카 타 르	50	103	23	40	36	131	122	1	61	104	47
	바 레 인	53	131	7	73	17	104	104	8	64	123	87
	오 만	66	123	49	79	19	116	122	10	60	130	112
	쿠웨이트	86	150	98	93	69	116	43	11	117	131	127
한 미 일	대한민국	5	17	12	1	79	36	21	25	3	4	5
	미 국	7	46	41	61	29	2	25	47	16	41	4
	일 본	29	83	83	28	73	71	35	122	20	26	2
B R I C s	러 시 아	62	34	156	143	12	61	100	49	155	14	65
	중 국	90	128	179	124	37	71	132	120	98	35	53
	브 라 질	120	167	174	19	138	89	35	177	123	118	55
	인 도	142	158	184	137	121	36	7	156	126	186	137

주: 189개 평가대상국 중 해당국의 순위를 의미하며, 낮을수록 양호

자료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2. 우리나라의 對GCC 무역 및 투자 동향

‘GCC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무역파트너, 우리의 투자는 아직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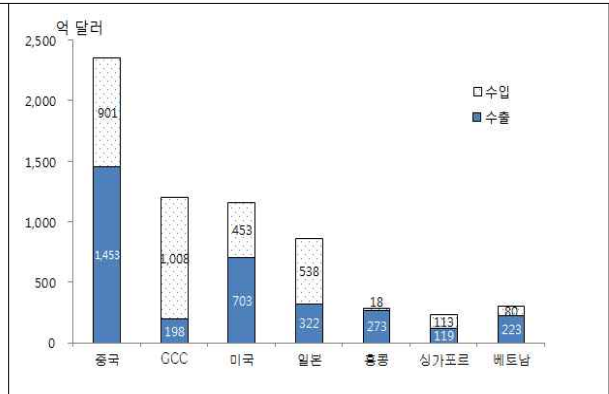
- 우리의 對GCC 무역 규모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년까지 상승세를 지속해 왔으며 2014년 1,206억 달러로 對세계 무역의 11.0%를 차지함.
- 수출은 연간 198억 달러로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에 이어 7위이며 對세계 수출의 3.5%를 차지.
- 수입은 연간 1,008억 달러로 단연 1위 수입시장으로서 對세계 수입의 19.2%를 차지.
- GCC 6개국 중에서 무역규모로 볼 때 450억 달러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역시 83억 달러로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 대상국임.
- 우리나라와 GCC는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로, 우리는 GCC로부터 원유 등 에너지를 수입하는 반면 GCC는 우리로부터 자동차, 선박, 정전기기, 무선통신기기 등 중화학공업 제품 등을 수입함.
- 우리나라의 對GCC 직접투자 규모는 2014년 9월말 현재까지 신고금액 기준 48억 달러로 對세계 투자금액의 1.2%에 불과함.

- 우리의 對GCC 직접투자 중 3분의 1 이상을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광업(20.7%), 제조업(16.7%), 부동산업 및 임대업(11.4%) 등이 그 뒤를 이음.

<對세계 수출입 중 對GCC 수출입 비중>



<2014년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수출입>



자료: 한국무역협회

3. 향후 진출 유망 분야

‘카타르 월드컵 및 두바이 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와 더불어 젊은 인구와 여성 사회진출 증가, 관광산업 확대로 소매유통시장이 유망할 전망’

- 2022년 개최되는 카타르 FIFA 월드컵과 2020년으로 예정된 두바이 엑스포 행사 등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와 더불어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므로 소매유통 시장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 AT Kearney의 2014년 글로벌 소매개발지수에 따르면 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GCC 국가들 중 4개국에 특히 유망할 전망이다.

<2014 글로벌 소매개발지수>

순위	국가	시장매력도 (25%)	국가위험도 (25%)	시장포화도 (25%)	시급성 (25%)	GRDI 점수	2013년 순위비교
1	칠레	100.0	100.0	13.2	47.3	65.1	+1
2	중국	60.9	52.5	44.5	100	64.4	+2
3	우루과이	93.4	57.5	70.3	32.4	63.4	0
4	UAE	98.5	82.3	17.5	43.8	60.5	+1
5	브라질	99.4	59.8	48.7	33.2	60.3	-4
6	아르메니아	26.4	35.3	81.5	86.7	57.5	+4
7	조지아	32.4	32.8	79.6	78.8	55.9	+1
8	쿠웨이트	78.8	72.6	32.9	31.7	54.0	+1
9	말레이시아	66.7	68.7	32.2	43.5	52.8	+1
10	카자흐스탄	45.4	38.5	72.7	54.3	52.7	+1
11	터키	83.6	50.2	46.5	30.2	52.6	-5
12	러시아	94.0	38.4	30.7	46.4	52.4	+11
13	페루	46.0	43	61.9	51.3	50.6	-1

14	파나마	56.2	46.9	52.7	41.3	49.3	+8
15	인도네시아	46.2	33.4	57.7	59.6	49.2	+4
16	사우디아라비아	72.3	67.3	29.5	27.4	49.1	0
17	오만	75.1	79.1	27.0	11.1	48.1	0
18	스리랑카	6.3	36.7	78.8	67.3	47.3	-3
19	나이지리아	39.6	6.6	92.3	48	46.6	N/A
20	인도	26.4	39	72.3	43.4	45.3	-6
21	콜롬비아	50.6	43	53.5	29.4	44.2	-3
22	요르단	49.8	43.7	65.6	15.2	43.6	-2
23	필리핀	33.0	33.2	55.8	50.5	43.1	N/A
24	코스타리카	62.1	45.9	40.4	21.5	42.5	N/A
25	멕시코	80.0	54.4	2.9	31.8	42.3	-4
26	보츠나와	26.1	60.7	34.8	44.1	41.4	-1
27	모로코	24.1	35.5	69.5	35.7	41.2	0
28	베트남	3.8	21.9	75.0	55.7	39.1	N/A
29	나미비아	8.6	57.9	27.2	58.8	38.1	-3
30	아제르바이잔	22.0	29.5	82.3	18.6	38.1	-1

주: 1-10위 국가는 우선적으로 진출 고려, 11-20위는 진출 고려, 21-30위는 낮은 우선순위.

자료: AT Kearney, The Global Retail Development Index “Full Steam Ahead for Global Retailers”

- 생산과 소비를 주도할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카타르 및 UAE 등은 2020년에도 이들 인구 비중이 80%를 상회할 전망이다.
- 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차 증가하면서 패션, 의류, 화장품 등의 소비와 더불어 가전제품 및 가공식품 등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여 쇼핑을 위해서는 걸어갈 수 있는 근거리의 재래식 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최근 비즈니스와 교육에 있어 여성에게 기회가 열리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관리자를 위한 해외 연수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국왕은 란제리와 화장품 매장의 남성고용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발표하여 수만 개의 일자리가 여성에게 제공됨.
-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로 인해 가사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식기세척기 및 여성의류, 화장품, 가공식품과 함께 영·유아들을 위한 이유식 판매 역시 확대되는 추세임.
- 쿠웨이트에의 여성은 총인구 380만 명의 약 40%인 150만 명이며, 15~40세의 젊은 인구가 여성의류 시장 수요를 이끌고 있으며, 쿠웨이트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여성의류 수입은 2012년 대비 28% 성장할 전망이다.
- 하반신까지 두르는 전통의상인 아바야(Abaya) 대신 현대적이고 진취적인 스타일의 우리나라 동대문 여성의류 패션이 각광받고 있음.
- GCC 회원국들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자 관광산업 발전과 동시에 관광 및 호텔, 쇼핑몰 등 복합적인 문화공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므로 소매유통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 UAE 소비자들의 니즈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가족 단위의 관광 및 소매 시장의 성장하는 가운데 가족지향적인 형태의 쇼핑몰과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있음.
- . 에펠탑 등 세계 유명 관광지 건물을 그대로 복사하여 건축하는 Falcony of Wonders와 같은 거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중이며, 2014년 2월에는 두바이 주메이라 해변가에 쇼핑몰, 식당, 산책로, 운동장 등이 포함된 형태의 “The Beach”라는 해변가 쇼핑몰이 등장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음.
- . 2014년 7월 두바이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복합문화쇼핑공간인 “Mall of the World”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이는 세계 최초로 온도가 통제되는 유리 지붕으로 덮인 실내 테마파크를 비롯해 7km 산책로를 포함한 쇼핑 물과 300만 평방피트에 달하는 의료관광객들을 위한 웰빙 지역까지 연간 1억 8천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몰로서 20,000개 객실의 100개 호텔과, 50,000 대 주차 가능한 공연장을 건설할 계획임¹⁾.
- . 오만 정부 역시 중동의 관광허브가 되기 위한 비전을 세우고 관광산업의 GDP 비중을 현재 약 3%에서 2023년까지 5.5%로 확대하기 위해 2020년까지 관광객 1,200만 명을 유치할 계획임.
- . 한편, 온라인 판매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인터넷과 휴대폰의 침투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향후 온라인 판매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GCC 국가들의 휴대폰 가입자 수는 홍콩(237명), 가봉(215명)을 제외하고 세계 최고 수준임.

<GCC 인터넷 및 휴대폰 보급률(인구 100명당 가입자 수)>

(단위: 명)

구 분		GCC						비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한국	중국	베트남
인터넷	2010	41.0	61.4	68.0	69.0	35.8	55.0	83.7	34.3	30.7
	2013	60.5	75.5	88.0	85.3	66.5	90.0	84.8	45.8	43.9
휴대폰	2010	189	133	129	125	164	125	105	63	125
	2013	184	190	172	153	155	166	111	89	131

자료: World Bank

‘GCC 지역의 인구 증가 및 성인병 발병률 상승으로 의료서비스 시장 및 헬스케어 시장이 유망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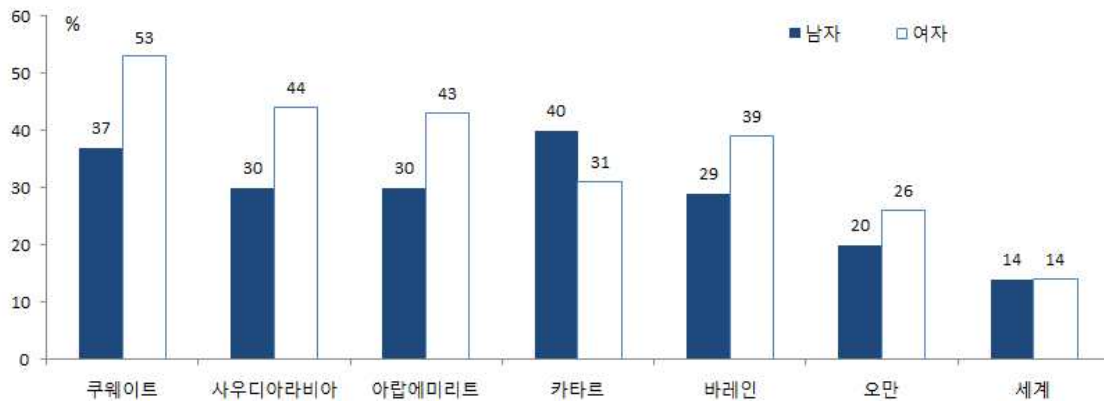
- . GCC 지역은 전반적인 의료기술 발달, 높은 출산율 및 유아 사망률 저하 등으로 유아 및 노인 인구가 동시에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은 의료서비스 수요가 많은 계층

1) Dubai Holdings 보도자료, 2014. 7. 5 (<http://www.dubaiholdings.com>)

입.

- . BMI에 따르면 GCC 인구는 40년 내 약 63% 가량 증가할 전망이며, 노인 인구 비중도 13%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예정임.
- . 더운 환경으로 인한 정적인 생활양식, 기름진 식습관, 높은 흡연율로 비만 등 성인병 발병률이 높은 편임.

<GCC 지역의 비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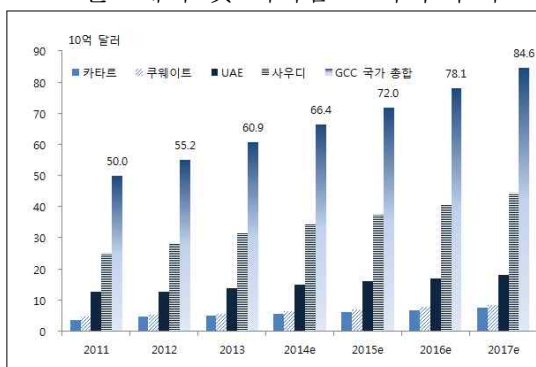


자료: 세계보건기구(www.wh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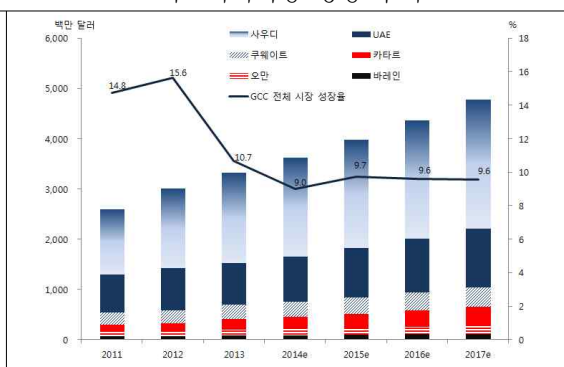
주: 비만 인구 산정기준은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30% 이상

- . 이에 따라 GCC 지역 내 의료비 및 약제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14년 총 합계액이 65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17년 경 850억 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다.
- . 더불어 의료기기 시장도 연 10% 이상의 무난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2015년 40억 달러 규모에 육박할 전망이다.

<헬스케어 및 의약품 소비액 추이>



<의료기기시장 성장 추이>



자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 . 점차 증가하는 의료서비스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GCC 국가들은 관련 정책 수립 및 인프라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카타르는 2013년~2033년 동안 진행될 장기 의료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승인하여 올해까지 모든 외국인들을 제도 안에 포함시킬 예정임. 현 카타르 노동인구의 94%가 외국인임을 감안했을 때 동 정책으로 카타르 내 의료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또한 카타르 최고보건위원회(SCH)는 Hamad Medical Corporation社 등과 협력하여 당뇨병 퇴치 캠페인인 Action on Diabetes(AoD)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만연하고 있는 당뇨병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국제당뇨병연맹(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에 따르면 큰 변화가 없는 한 2030년 카타르 인구의 약 25%가 당뇨병을 앓을 전망이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4년 11월, 민영 의료 분야에 대한 자유화를 시행하여 외국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영리목적 의료시설을 세우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 질 전망이며 의료서비스의 질과 양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사우디 보건부는 예산을 10% 증액하여 향후 5년 내 총 33,000개 병상을 보유할 100개의 병원을 추가 설립하는 한편, 1,500명의 의료진의 해외유학을 계획임.
- 쿠웨이트는 2014년 9월, 해외에서 치료를 받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대폭 삭감함. 이는 국내 의료시장 소비 및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이후 해외 치료 환자들은 기존 348 달러에서 대폭 삭감된 261달러를 받게 됨.
- 또한 쿠웨이트 정부는 총 1,732만 달러를 투자한 Yaqoub Behbehani 암 센터를 2014년 10월 완공함.
- 오만은 2011년 ‘오만 의료비전 2050’을 발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 수요에 부합하는 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해 노력 중임. 2014년에도 Al Falah, Al Najat, Al Nama 등 다수의 병원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수도 무스카트 인근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대규모의 Medical city 건립을 시작함.
- 아울러 2014년 보건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33.8억 달러로 책정해 관련 정책 및 사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

<현재 추진 중인 GCC 지역 주요 의료 인프라 사업>

(단위: 백만 달러)

프로젝트명	투자금	규모	완공시기
King Khaled Medical City(사우디)	4,300	1500(병상)	2017
Riyadh Security Forces Medical City(사우디)	3,350	1,668(병상)	2016
King Khalid Medical City Project(사우디)	1,200	700,000(m ²)	2018
Al Ain Hospital(UAE)	1,200	358,000(m ²)	계약 단계
New facility at Mediclinic City Hospital(UAE)	-	200,000(m ²)	계약 단계
Al Mafraq hospital(UAE)	600	739(병상)	2014
International Medical City(오만)	1,000	866,000(m ²)	2021

자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 . 이러한 흐름에 따라 유력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및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 2014년 UAE 제약업체 네오파마社는 인도의 바이오콘社, 헤테로社 등과 협정을 맺고 의약품 현지생산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가격경쟁력 우위를 도모할 계획임.
- . 2014년 12월, 프랑스 제약업체 사노피社가 사우디아라비아, King Abdullah Economic City 산업단지에 해외 제약업체 최초로 생산공장 운영 개시. 동 공장은 연간 2,000만 개의 약을 생산할 예정임.
- . 카타르 통신업체 Ooredoo社는 2015년, 파키스탄 통신업체 클라우드링크社와 제휴하여 카타르 최초의 클라우드 기반 전자의무기록(EMR) 및 병원 관리 시스템 개발 개시
 - *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기존 종이 차트에 기록했던 환자 데이터를 전산화하여 입력 및 관리하는 시스템
- . 이 외에도 2013년, 글로벌 제약업체 엘라이 릴리社, 스페인 제약업체 신파社 등도 UAE에 이미 진출, 현지 시장 공략에 교두보를 마련해 둔 상태임.
- .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의료시장 진출도 의약품 뿐 아니라 의료기술 제공과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인력 파견 등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 2011년, ‘디지털 병원시스템’ 수출 형태로 UAE에 진출한 우리들병원은 이듬해 4월엔 UAE 아부다비 보건청과 환자송출 MOU를 체결하여 2012년 14명, 2013년 77명, 2014년 186명 등 점점 더 많은 UAE 환자들이 방문 중임.
- . 서울 성모병원도 2014년 9월, UAE 아부다비의 VPS헬스케어그룹과 아부다비 건강검진센터 설립에 대한 협정을 체결, 2015년 1월부터 5년간 UAE 아부다비에 한국형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할 예정임.
- . 서울대병원은 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Sheikh Khalifa Specialty Hospital, 이하 UAE 왕립병원)을 설립하고 2월 18일 개원하여 공식적인 진료를 시작함.
 - * 동 병원은 UAE 대통령이 지역사회에 기부한 3차 의료기관으로 암, 심장질환, 신경계질환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48병상 규모임. 서울대병원에서 파견된 의사 35명, 간호사 74명 등 한국 의료진 170명과, UAE를 비롯한 외국인 280명 등 총 450여명이 근무 중으로 2015년 말부터는 1천여 명으로 확대될 예정
- .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2014년 11월 외래진료 시작 이후 외래환자는 약 700명에 달하며 12월 병동 가동 후 약 50명이 입원 중이나 올해 4월 전체 병상 및 외래진료 가동 시 환자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 2013년, 일양약품은 UAE의 헬스케어 그룹의 라이프파마社와 역도성식도질환 치료제인 ‘놀텍’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 당해 하반기부터 GCC 국가를 포함한 총 13개국에 판매 개시하였으며 2014년 5월, UAE의 보건부로부터 GMP(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 적격업

체로 등록함.

- 한국 코러스제약도 2013년, UAE 두바이에 소재한 파마스토어社 당뇨병 치료제 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GCC 시장에 진출함.

‘산업다각화와 자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교육기자재 및 서비스 시장이 유망할 전망’

- GCC 각국은 2014년 정부예산 중 약 8~25%를 교육 부문에 지출하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24.5%로 가장 높음.
 -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에도 정부 예산 중 25%를 교육 부문에 배정했으며 465개 학교의 추가 건립 및 1,500개 학교의 재개발 계획을 이행 중

<2014년 교육 정부지출액 및 총예산 중 비중>



<GCC 각국의 교육 단계별 등록률>

(단위: %)

국 가	유아	초등	중등	고등
사우디아라비아	13.2	102.8	106.2	50.9
바레인	49.8	107.3	95.5	33.5
오만	54.6	109.0	94.2	24.7
쿠웨이트	82.2	105.6	101.0	22.9
UAE	71.1	108.3	90.6	22.5
카타르	73.4	104.6	111.6	12.1
GCC	26.2	114.2	111.9	42.3
세계	50.1	107.1	70.6	30.1

주: 각국별로 등록률이 100%가 넘는 경우는 중등,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나이의 인구가 분모가 되고 등록한 학생 수는 분자가 될 때, 늦깎이 혹은 조기교육을 하는 학생들과 과정을 반복하는 학생이 분자에 포함되는 경우임

자료: Alpen Capital

- GCC 지역 내 0~14세 인구 및 15~25세 인구는 각각 1,100만 명과 690만 명으로 지역 전체 인구의 28.5%, 17.5%를 차지하며 이러한 젊은 인구의 높은 비중은 교육서비스 시장에 큰 기회가 있음을 시사함.
- GCC 회원국들의 고등교육은 초·중등교육에 비해 약한 상황이며, 교육시스템의 품질 역시 국가별로 상이하나 지식집약형 및 연구개발형 인적자원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교육시스템의 품질은 쿠웨이트가 105위로 회원국들 중 가장 낮은 반면 카타르는 3위, 아랍에미리트는 9위를 기록

<2014~15년 GCC 국가들의 교육경쟁력 순위>

국 가	교육시스템 품질		인터넷 접근성	
	순위	점수(1~7)	순위	점수(1~7)
사우디아라비아	47	4.1	63	4.6
UAE	9	5.3	18	6.0
카타르	3	5.8	25	5.9
쿠웨이트	105	3.1	80	4.1
오만	81	3.5	60	4.6
바레인	38	4.3	39	5.2

주: 151개국을 대상으로 매긴 교육 관련 지표의 순위 및 점수로서 1-7점 사이의 점수는 7로 갈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냄

자료: World Economic Forum

- . GCC 각국 정부에서는 교육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 중이며 외국인들의 유입이 많아 사립학교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등 글로벌 대학 및 사립교육기관들이 GCC 시장에 대거 진출하고 있음.
- . 사우디아라비아는 엄격한 사우디 공립학교에서 이민자들이 퇴출당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사립학교 수요가 증가 중이며 2007년 12개에서 2011년 36개로 증가함.
- . 아랍에미리트 역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민간 교육 시장에 대한 수요와 투자가 크게 증가 중임.
-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등은 대규모 교육도시를 건설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 . 한편 인터넷 및 휴대폰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GCC에서는 특히 스마트교육 및 e-러닝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 따라서 교육관련 전산시스템 및 장비, e-러닝 솔루션 분야 역시 ICT 산업의 발전 추세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IT 분야에 대한 투자는 GCC 회원국 중 최대 규모이며 ICT 시장 규모 역시 10% 이상 증가 중이며 스마트폰 및 고속통신망 관련 서비스 프로젝트도 시행 중임.
- . 우리나라 교육기업인 대교에서는 두바이와 쿠웨이트에 2014년 8월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e-러닝 센터를 개설하였으며 아랍 22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유아교육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영어 및 수학 과정을 제공 중임.